

도서관/박물관 협력체제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odel Development of Cooperation System for Library & Museum

박 재 용(Jae-Yong Park)*
조 윤 희(Yoon-Hee Cho)**

목 차

| | |
|--------------------|---------------------------|
| 1. 서 론 | 3. 1 도서관의 협력체제 현황 |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박물관의 협력체제 현황 |
|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3. 3 도서관·박물관 협력체제 사례 |
| 2. 이론적 배경 | 4. 도서관/박물관 협력체제 모형 및 발전방안 |
| 2. 1 협력체제의 필요성 | 4. 1 협력체제 구축 원칙 |
| 2. 2 협력체제의 모형 | 4. 2 협력체제 구축 모형 |
| 2. 3 선행연구 | 4. 3 향후 발전방안 |
| 3. 도서관/박물관 협력체제 현황 | 5. 결론 및 제언 |

초 록

최근 지식정보자원의 급증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오랫동안 지식과 정보자원을 독자적으로 수집하여 서비스를 제공해 온 도서관과 박물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하나의 도서관이나 박물관이 이용자들이 원하는 지식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제공할 수 있는 물리적 자족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협력을 시작하고, 국제적 체제로 도서관·박물관·아카이브 등 문화유산기관 간 풍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과 박물관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모형으로 자율방임형·상호교환 모형·분산형 상호서비스 모형·집중형 서비스센터 모형·혼합형 공동관리 모형을 제시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Recently, the rapid increase of knowledge information resources and the advance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has affected all libraries and the museums which collected knowledge and the information resources and provided service with indigenous for a long time. Hence, The library and the museum began to constructs the cooperative system with the cultural heritage agency such as international 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 after realizing the impossibility of physical self-sufficiency that the users are not able to obtain the knowledge resources and the library are not able to provide them. In this paper, some models are presented for the data cooperation system construction of the library and the museum and developmental plan in the future. The models are (1) Interchangeable model for autonomous noninterference (2) dispense mutual service model (3) intensive service center model (4) a mixture union model.

키워드: 협력체제, 도서관, 박물관, 자료조직

Library, Museum, Cooperation, Collaboration

* 신라대학교 경상대학 경영정보학과 교수(jypark@silla.ac.kr)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초빙교수(cho519@wm.cau.ac.kr)

논문접수일자 2004년 5월 15일

개재확정일자 2004년 6월 14일

1.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도서관과 박물관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활동하는 문화유산기관으로서 공익적 목적을 공유한다. 그러나 특성이 서로 다른 이 두 문화유산기관은 수 년 동안 협력적 측면에서 상당히 다른 전통을 유지하면서 서로 다른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실무를 개발해 왔다.

최근 지식정보자원의 급증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오랫동안 지식과 정보자원을 독자적으로 수집하여 서비스를 제공해 온 도서관과 박물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이들 각 조직들은 다양한 유형으로 협력을 시작하고, 국제적 체제를 갖춘 도서관, 박물관, 아카이브 등 문화유산기관 간 풍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하나의 도서관이나 박물관이 이용자들이 원하는 지식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제공할 수 있는 물리적 자족(physical self-sufficient)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에 유비쿼터스 환경하에 이용자들에게 원-스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원공유(resource sharing)를 통한 협력체제의 구축이 핵심 키워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박물관, 도서관, 아카이브에 소장된 정보에 대한 접근수단으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협력체제 구축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8장에서는 도서관 간 협력망 구축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를 기반

으로 도서관계는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이 주축이 되어 공공도서관협력망을 구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중심이 되어 대학도서관 협력망을 구축하여 여러 가지 협력사업과 지역단위 협력망 등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적 차원에서 도서관협력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서관 협력체제의 성공적 확대와 구체적인 협력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표준 모델을 개발하여 제시하는 도서관협력망 협력사업 표준모델을 개발하였다.

한편,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9장에서는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구축을 명문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에 현재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을 중심으로 협력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국가문화유산종합정보시스템은 2001년 26개의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정보를 기반으로 시작되어 2006년 29개 박물관이 참여하는 국가문화유산종합서비스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은 2010년까지 전국의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연극, 음악, 무용, 영상, 문화정책, 문예일반, 미술 분야 전체에 걸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협력체제를 구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과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아울러 도서관과 박물관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모형 개발을 위하여 협력체제의 필요성과 협력 모형, 협력체제 구축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도서관과 박물관간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모형을 도출하

고, 향후 도서관과 박물관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모형 제시와 발전 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도서관과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정보자원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모형을 개발하는데 있다. 이에 지금까지 독자적으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 하던 도서관과 박물관이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보다 풍부한 정보서비스로 이용자를 만족 시킬 수 있도록 협력체제 모형을 제시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지금까지 서로 다른 방법으로 독자적인 자료조직과 실무를 개발해 온 문화유산기관인 도서관과 박물관의 협력체제 모형을 개발하기 위하여 문헌적 고찰과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도서관과 박물관 협력 네트워크 현황 및 사례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에 도서관과 박물관의 협력체제 모형 개발을 위한 이론적 배경이 되는 협력체제의 필요성과 모형 및 선행연구는 문헌적 고찰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도서관과 박물관 협력체제 현황 조사는 도서관과 박물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대표적인 몇 개의 기관을 선정하고, 현재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협력체제 네트워크 서비스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에 이론적인 문헌적 고찰과 인터넷 현황조사를 기반으로 도서관과 박물관 협력체제 모형을 제시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 1 협력체제의 필요성

오늘날 도서관과 박물관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환경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유비쿼터스 환경하에 통신망을 통한 정보의 양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동시에 정보에 대한 접근이 확대됨에 따라 이용자의 정보서비스 요구는 다양하면서도 포괄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용자의 확대된 정보서비스 요구에 부응해야 할 도서관과 박물관은 제한된 예산으로 현재와 같이 급속히 증가되고 있는 정보자원을 모두 구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그 내용과 범위 및 깊이에 있어 더욱 풍부하고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희망하는 이용자들의 정보서비스 요구와 도서관과 박물관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서비스는 양적 질적 측면에서 합리적 접점을 찾기가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도서관과 박물관을 둘러싼 변화하는 환경은 개별 기관이 독립적으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만족스럽게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이용자의 도서관과 박물관 정보서비스에 대한 요구와 도서관과 박물관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정보서비스 모형을 개발하여 그 돌파구를 찾아야 할 상황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도서관과 박물관은 서로 협력하여 자원을 공유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 대처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문화유산기관들이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기본 목표는 이용자를 위한 정보서비스 품질의

향상에 있다. 이러한 협력체제를 통하여 인류의 지식정보자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용자를에게 공평하게 이익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문화유산기관은 적절하고, 효과적인 비용으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의 소장과 접근의 측면에서 과거의 도서관과 박물관은 자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 및 소장품만을 대상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소극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도서관과 박물관은 정보에 대한 접근을 확장하고 이용자에 대한 적극적인 서비스로 그 기능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기저에는 도서관과 박물관의 주변을 둘러싼 사회적 변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인터넷의 보급과 확산으로 다양하고 풍부한 관련 자료 및 소장품에 대한 접근이 전문가인 사서나 학예사 뿐 아니라 일반이용자들에게도 손쉽고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정보의 수집과 이용 및 활용 측면에서 점차 수준 높은 이용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서관과 박물관은 과거보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보서비스 요구를 가진 이용자를 상대하게 되었다.

각 도서관과 박물관들은 이용자가 이미 알고 있는 자료와 자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와의 차이를 적절하게 해소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궁극적으로 도서관과 박물관은 최소한 자료의 자관 소장여부를 떠나 이용자가 요구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아울러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자료를 전자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자도서관이나 전자박물관의 출현

은 이용자의 도서관과 박물관에 대한 정보요구를 더욱 촉진시켰다. 따라서 이러한 전자도서관과 전자박물관의 정보서비스는 관련 기관들 간에 협력네트워크가 구축되었을 때 더욱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서관과 박물관이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호대차, 협동수서 협동 서지통정 등을 통하여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간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는 협동이다. 둘째, 정보자원에 신속하게 접근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형과 규모의 기관들을 연결하는 현대적인 개념의 정보시스템에 의거한 네트워크 구축이다.

이처럼 상호 관련된 기관간 협동은 공동의 사업을 통해서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형식으로서 본부라는 조직구조를 필요로 하는 전통적인 네트워크 모형이 이 형식에 속한다. 반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력체제는 인터넷과 같이 특별한 통제 조직 구조 없이 단지 필요로 하는 정보에 접근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여러 기관과 조직들의 정보자원을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연결시키는 형식이다.

이에 오늘날 도서관과 박물관이 이용자의 다양한 정보서비스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문화유산기관으로서 인류 문화유산 자원의 수집, 보존과 관리,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관련 기관간 협동과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 협력체제의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

2. 2 협력체제의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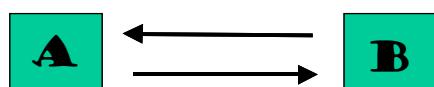
전통적으로 협력체제의 구축은 자발적이며

쌍방향적인 협력(cooperation)과 협동(collaboration)을 기반으로 한다.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는 상호 보완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개별 도서관과 박물관에 제공하는 정보서비스의 역할을 모두 대행할 수는 없다. 이에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도서관과 박물관은 자관의 이용자 정보서비스 요구에 기본적으로 충실히해야 한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협력체제 모형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협력체제 구축을 기반으로 연구된 Abans(1995)의 협력체제 모형을 중심으로 상호교환, 공동관리, 상호서비스, 서비스센터 모형 등 4가지 유형을 살펴보기로 한다.

① 상호교환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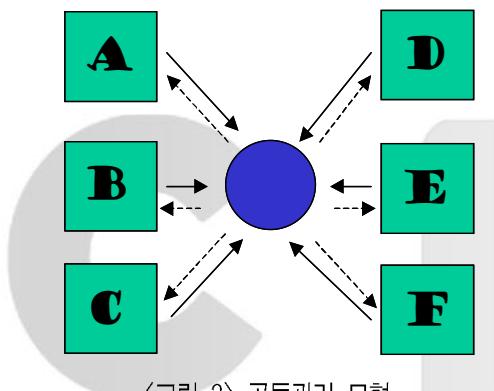
상호교환 모형이란 아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개의 기관이 상호 협약을 체결하여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형태의 모형이다. 이러한 상호교환 모형은 정보자원을 동등하거나 유사하게 소장하고 있는 기관간에 균등한 형태로 협력체제를 구축한다는데 기저를 두고 있다. 따라서 상호교환 모형의 전형적인 서비스로는 규모가 비슷하거나 동등한 두 기관이 상호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공유하거나 상호대차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보서비스 접근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



<그림 1> 상호교환 모형

② 공동관리 모형

공동관리 모형이란 아래 <그림 2>에서와 같이 협력체제를 관장하는 총괄 본부를 중심으로 두 개 이상의 기관이 협력체제를 구성하는 모형으로써, 둘 이상의 여러 기관들이 협력체제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모형에서는 두 개 이상의 협력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총괄 본부를 통하여 필요에 따라 서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초기의 많은 도서관 협력체제 모형이 여기에 속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OCLC의 초기 협력체제 모형이 이 방식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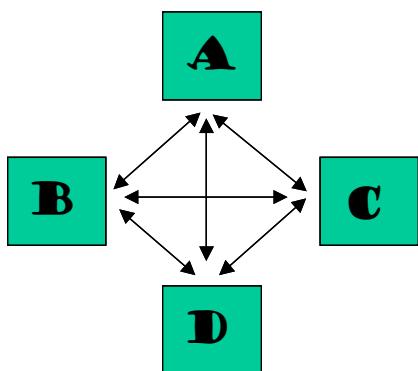


<그림 2> 공동관리 모형

③ 상호서비스 모형

상호서비스 모형이란 아래 <그림 3>에서와 같이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기관이 동일한 결과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협약을 체결하여 협약체결기관의 시설을 직접적으로 접근하여 활용하는 모형이다. 대표적인 상호서비스 모형으로는 도서관의 전통적 정보서비스인 온라인 목록(OPAC)을 들 수 있다. 초기의 대부분의 도서관 협력체제 시스템들이 이 모형으로 구축되었다. 대표적인 상호서비스 모형의 사례로는

미국의 RLIN(Research Library Information Network) 초기 시스템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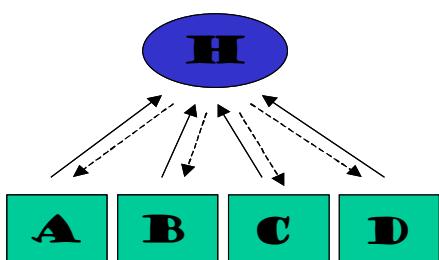


〈그림 3〉 상호서비스 모형

④ 서비스센터 모형

서비스센터 모형이란 아래 <그림 4>에서와 같이 여러 기관이 하나의 시스템 조직인 본부를 구축하여 개별적으로 자료를 입력하고 처리하는 모형이다. 오늘날 본부형식의 서지정보 처리기관이 중심이 되어 구축하고 있는 협력체제 모형들이 이 모형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서비스센터 모형으로는 OCLC와 WLN(Western Library Network), 우리나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공동목록시스템을 들 수 있다.

한국도서관협회(2002)는 도서관협력망 협력사업모델에서 도서관협력모형으로 다음의 4가



〈그림 4〉 서비스센터 모형

지 방식을 제시하였다.

① 도서관협력센터를 둔 집중방식

이 모형은 하나의 도서관이 그 국가의 중앙 콜렉션(장서)의 기능을 가지고 상호대차나 서지 조사기능을 가지고 충분한 설비와 직원을 확보하여 전국적 규모로 각종 도서관의 요구에 응하는 시스템이다. 도서관협력센터와 각 도서관간의 접근이 짧고 단순한 것이 이상적이기는 하나, 현재와 같은 폭발적 출판물 증가와 자료의 전문화, 이용수요의 증대에 따르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이 모형에 해당되는 예로는 미국 의회도서관과 영국도서관의 대출국(BLLD)이 형태에 속한다. 미국의 OCLC와 New York State Interlibrary Loan 체제는 완전집중형의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② 계층적 협력지도방식

계층적 협력지도 방식은 중앙집중 방식의 도서관협력센터가 협력체제 도서관에 계층적으로 협력지도를 수행하는 모형이다. 피라밋형의 협력관계로 러시아의 레닌도서관과 기타 도서관이 이 모델에 가까우며, 미국의 지방의학 도서관 프로그램도 이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계층형은 도서관의 기구상 구조와 업무 처리 양상이 비슷한 도서관끼리 횡으로 하나의 계층을 형성하며, 종으로는 하위계층에서 상위 계층으로 올라갈수록 소장 장서의 규모나 내용이 보다 포괄적이어서 이용자의 요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③ 지방분산적 협력방식

분산형은 집중형과 달리 중앙에서 총괄하는

체제가 아니라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도서관들을 모두 커뮤니케이션 경로로 서로 연결함으로써 도서관간 직접적인 정보전달이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의 협력방식이다. 이론상으로 이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내 각 도서관이 어느 정도 보유 장서의 주제별 특성을 달리하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 방식은 도서관협력센터가 비교적 소규모이며 지방분권 준중의 입장에서 협력을 제도적으로 발달시키기에 적합한 방식이다. 반면 커뮤니케이션 경로가 많기 때문에 경비절감 효과는 크지 않다. 이 방식의 사례로는 미국연구도서관협회(RLIN), 영국도서관과 지역본부도서관 및 각 도서관이 형성하고 있는 영국의 지역도서관 시스템(Regional Library System) 등이 있다.

④ 협력센터를 통한 기능분담방식

이 모형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여러 개의 도서관이 도서관협력센터로서 업무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각 도서관과의 협력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의 단점으로는 각 센터간의 조정이 어렵고 중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재정적 손해가 생길 수도 있다. 아울러 이용자에 대해 신속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 아울러 이 방식은 자료의 조직적 보존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현재 이 방식을 택하고 있는 국가는 없으나, 지역적으로 장서의 분담 수집을 행하고 있는 미국의 팜팅턴계획(Farmington Plan), 독일의 공동수집계획(Sondersamme Lgebiets Programm) 등이 이 방식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2. 3. 선행연구

현재 도서관과 박물관 협력체제 모형과 직접 관련된 선행 연구는 전무하다. 다만 도서관과 박물관의 개별적 측면에서 협력체제 구축과 관련한 연구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수행되었다.

우선 도서관 협력체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로서 우리나라 1960년대부터 도서관협력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되었으며, 구체적인 연구로서는 박준식(1974)의 대구지역 대학도서관 상호 협력에 관한 연구에서 본격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조화경(1981)은 동일 행정체계내에서의 도서관간 협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김창근(1994)은 도서관 상호협력의 효율을 결정하는 요인을 연구하였다. 김중식(1995)은 대전지역 7개 대학도서관 시스템을 분석하여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를 설계하였다. 이지원(1996)은 대학도서관 지역정보망 구축을 위한 방안을 3단계로 제시하였다. 이현실(1999)은 대학도서관 협력망 사례조사를 통하여 협력망 모형을 제시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2002)은 우리나라 도서관협력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서관 협력체제의 성공적 확대와 구체적인 협력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표준 모델을 개발하여 제시하는 도서관협력망 협력사업 표준모델을 개발하였다. 이용남 등(2002)은 공공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설문과 면담조사로 협력망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도서관 협력망 발전방향으로 하향식 모델과 상향식 모델 두 가지 형태의 협력망을 제시하였다.

이와 반면에 박물관 협력체제와 관련한 국

내 연구는 미미하다. 다만, 협력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유사 연구를 정리하면, 협력체계 구축에 기반이 되는 전산화, 표준화, 네트워크 구성 등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협력체계 구축의 기반이 되는 박물관 자료의 전산화를 위한 표준분류와 용어집, 시소러스의 개발과 관련한 연구로서 나선화(1989), 박인원(1993), 정은숙(1995), 김혜경(2003) 등의 연구가 있다.

둘째, 박물관 소장품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이터베이스 표준화와 데이터 요소에 관련한 연구로서, 한국문화예술진흥원(1990), 황동열(1992), 윤귀성(1999), 조윤정(2002) 등의 연구가 있다.

셋째, 박물관 소장품을 네트워크 구성을 통하여 공유하는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로서 김기수(2002), 김은수(2003) 등의 연구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박물관 연구의 중심축을 이루는 한국박물관학회(1998)와 한국박물관건축 학회(1997)는 90년대 후반에 결성되었다. 아울러 박물관과 관련한 연구도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그 연구가 본격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등에 박물관학이나 예술경영, 예술행정을 전공할 수 있는 석사과정이 생겨났고, 이들의 연구 결과물로 2002년부터 다양한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그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의 박물관 연구 결과들은 박물관의 건축, 교육프로그램 개발, 이용자 연구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3. 도서관/박물관 협력체제 현황

3. 1 도서관의 협력체제 현황

Sewell(1981)은 현재 도서관의 협력체제를 그 목적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상호대차. 협동수서, 협동 서지통정 등을 통하여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협력체제 시스템이다. 둘째, 정보자원에 신속하게 접근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도서관들을 연결하는 협력체제 시스템에 기반하는 네트워크의 구성이다. 전자는 도서관들이 공동의 사업을 통해서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형식으로서 본부라는 조직구조를 필요로 하는 형식의 일종이다. 전통적인 도서관 네트워크들의 협력체제가 대부분 이 형식에 속한다. 후자는 인터넷과 같이 총괄하여 관리하는 특별한 조직 구조 없이 단지 필요로 하는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도서관을 포함한 여러 기관과 조직들의 정보자원을 컴퓨터망을 통해 상호 연결하는 형식의 협력체제이다. 이는 전략적 제휴를 통한 협력체제로서 벽 없는 도서관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67년 국립중앙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10개 도서관이 ‘도서관 자료이용 및 상호대차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것을 계기로 지역별 또는 분야별로 초보적 수준의 협력체제가 구성, 운영되기 시작했다. 이에 협력 도서관 간 상호대차나 종합목록을 발행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협력이 유지되었다. 아울러 유사한 도서관 그룹간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현상이 출현했으나 문서상의 협력에 그쳤을 뿐 실제 활용부분에서는 적극적이지 못하고 친목도모의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각종 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상호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도서관 상호협력 분야 중에서 상호대차와 원문복사서비스를 중심으로 협력체제가 활발하게 구축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시기적으로 컴퓨터와 정보통신의 발달과 인터넷 보급의 확대되어 도서관간 정보나 자원의 확인과 교환이 용이해진 외적 요인과 도서관 전산화를 통해 서지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완료된 시점으로 이를 통해 이용자가 자관은 물론 타 도서관의 자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내적 요인이 궁극적으로 도서관 이용자들의 정보요구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협력체제를 구축한 도서관 시스템을 사용하여 이용자들의 요구를 최대한 충족시켜 주기 위한 도서관 역할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도서관의 내·외적 요인과 기술을 기반으로 도서관의 자료를 우편이나 Ariel, FAX 등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신속하게 자료를 제공하게 되었다.

90년대 후반부터 도서관은 상호협력을 통한 서비스로 이용자들에게 보다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아울러 도서관 상호협력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도서관간 협력 활동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되었다.

그런데 1990년대 말 경제위기로 인해 도서관의 자료구입에 따른 예산확보가 더욱 어렵게 되었다. 특히, 외국자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장서의 질적 수준을 계속 유지하기가 곤란해지고, 출판량의 증가로 인해 어느 한 도서관이 주어진 예산의 범위내

에서 효율적인 장서개발을 한다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아울러 도서관은 자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보존을 위한 소장 공간 역시 한계에 이르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도서관간 자료의 중복구입을 최소화하고, 보다 다양한 자료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실용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었다.

이에 도서관간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과 이용을 위한 구체적 방안 모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기존의 협의체를 배제한 지역 단위의 도서관 협의체가 새로이 구성되고 협정서 규정으로만 남아 있던 상호협력체제 협약안이 실제로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중심으로 한 대학도서관 소장 자료의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활용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각 지역별로 지역단위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수서, 공동목록, 상호대차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최근 가장 두드러진 협력체제 사례로는 경기도 사이버중앙도서관 구축을 들 수 있다. 이 사업은 경기도내 모든 공공도서관과 기타 관련 기관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다. 특히 경기도가 직접적으로 협력체제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는 강력한 행정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에 향후 경기도 사이버중앙도서관의 성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반면에, 해외에서는 우리나라 보다 더욱 활발하게 협력체제 구축 활동이 전개되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도서관 협력체제 구축의 예로 파밍تون계획과 캘리포니아 주립도서관 협력

체제 구축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파밍톤계획(Farmington Plan)은 1942년 미국의회도서관과 미국농학도서관, 미국의학도서관이 주축이 되어 50여 대규모 도서관이 세계 각국의 자료를 분담 수집하고 상호 이용하는 협력체제를 구축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1963년 제정된 공공도서관 서비스법(Public Library Service Act)을 기반으로 캘리포니아 주립도서관 상호협력 체계가 구축되었다. 이 협력체제는 자원공유 활동과 공공 도서관들간의 협력과 협동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공공도서관과 다른 관종의 도서관들이 다양한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 도서관 협력체제로 발전시켰다. 캘리포니아 주립도서관(California State Library)이 운영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도서관 상호협력 네트워크(The Library of California: <http://www.library.ca.gov>)는 가상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관종의 도서관 네트워크(multitype library network)로서 공식적으로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도서관들이 함께 일하는 상호협력적 조직이다.

3. 2 박물관의 협력체제 현황

박물관은 도서관 협력체제의 구축과는 상당히 다르다. 박물관간 협력의 일반적 사례는 전시, 순회 소장품의 공유와 연구에 대한 소장품의 공유를 들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도서관과 같은 구체적인 협력체제의 구축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국가정보화 사업을 기반으로 초보적인 수준으로 협력체제가 태동하고 있다. 또한 박물관 연

구가 90년대 후반부터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면서 협력체제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어 서서히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

박물관 협력체제와 관련한 사업으로는 IMF 구제금융 이후 '90년대 말부터 시작된 국가 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박물관 정보화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초고속 통신망을 통한 박물관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초보적인 수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박물관의 대표적인 협력체제로는 국가문화유산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서비스이다. 이에 문화재청 주관으로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등 국가 문화재 정보와 전국 26개 박물관이 소장한 유물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문화유산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5년까지는 250여개 국립 공·사립 대학박물관 및 전국의 문화재정보를 종합네트워크로 구축, 범국가적인 국가문화유산정보를 서비스 할 계획이다.

반면, 문화관광부가 주관 기관으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은 2010년까지 전국의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로 확대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체제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는 연극, 음악, 무용, 영상, 문화정책, 문예일반, 미술분야 전체에 걸친 콘텐츠로서 국립중앙, 국립국악원, 국립현대미술관, 예술의 전당,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한국영상자료원 등이 참여하여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박물관 협력체제 구축은 정부주도의 통합 문화유산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들이 지속적으로 성공적인 협력체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참여기관의 적극적인 협력과 협동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반면에, 해외에서 가장 두드러진 박물관 협력 노력은 다양하고 전문적인 박물관협회의 활동에 기반하고 있다. 이에 박물관 전문가들은 협력체제 구축 활동을 위해 협회에 가입하고 있고, 박물관은 국가 혹은 지역 협력체제와 연계되어 활동하고 있다.

특히, 90년 중반 이후로 몇 가지 주요 박물관 협력이 시작되었다. 1997년 20개 이상의 주요 예술박물관들은 교육적 이용에 대한 허가권이 있는 디지털 작품의 소장품 정보 생성의 목표로 AMICO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이들 협력사업을 통하여 AMICO 웹 사이트는 11,000이상의 회화, 4000이상의 조각, 9000이상의 테생, 11,000이상의 인쇄물, 23,000이상의 사진, 1000이상의 문서, 1000이상의 전통복과 보석, 4500이상의 장식미술 작품 500이상의 책과 필사본의 자원을 구축하여 비디오, 오디오, 동영상, 텍스트 등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망라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제 박물관 조직으로서 CIMI는 1990년에 설립되었다. 이에 CIMI는 디지털 형태의 박물관 정보 보존을 지원하고 정보교환의 잠재력을 확장하는 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국제적인 박물관 조직으로 탄생하였다.

일반적으로 박물관 소장품은 디지털화의 유용성, 소장품의 접근 및 이용에 이르기까지 대개 지역시설에 제한된다. 특히, 몇몇 박물관을 제외하면 박물관은 항상 직접 방문할 수 있는

사람이나 박물관 시설에 자리적으로 인접하여 살고 있는 이들에게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리적 한계를 가진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인터넷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문화유산기관(cultural heritage institutions)으로서 박물관도 365일 24시간 동안 전세계에 펼쳐 있는 이용자들에게 박물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소장품에 자유롭게 접근 가능하도록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유일본의 특정한 소장품을 보존하고 있는 박물관은 비슷하거나 보완적인 소장품을 가지고 있는 다른 곳과 협력체제를 유지하여 보다 풍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네트워크 시대에 새로운 기회이고 박물관 고유의 임무이며 사명에 부합되는 도전이다.

3. 3 도서관/박물관 협력체제 사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도서관과 박물관의 협력체제의 구축에 대한 사례는 찾아 볼 수 없다. 아울러 박물관의 협력체제에 대한 관심은 도서관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도서관과 박물관 협력체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미술관이미지컨소시엄 (AMICO : Art Museum Image Consortium)과 American Memory Project 및 ArtsConnectEd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협력체제 사례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AMICO(www.amico.org)

AMICO는 1997년 9월 미술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들의 독립된 비영리 단체로 탄생하

였다. 이에 1998년 토론토대학이 주축이 되어 U of T를 테스트베드로 개발하였다. 이는 박물관 소장품을 통한 교육적 이용에 멀티미디어 활용을 확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AMICO는 박물관 소장품의 이용을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통합적 접근을 요구하는 도서관과 지적재산권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용이하고 효율적으로 자료를 이용하기를 바라는 이용자들의 정보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협력체제 구축을 모색하였다. 이에 따라 박물관과 도서관 및 이용자를 연결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교환할 수 있는 디지털도서관커뮤니티를 구성하게 되었다. 현재 AMICO 홈페이지, Cartography협회, Wilson, OhioLINK, RLG, Michigan 등과 협력체제를 통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② American Memory Project(<http://memory.loc.gov>)

1997년 미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과 Ameritech 도서관의 American Memory Project는 다른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 장서를 공유할 수 있는 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1999년 말부터 3년 동안 Ameritech은 다른 박물관과 도서관들에서 소장하고 있는 관련 콜렉션을 가지고 미국기념디지털프로젝트(American Memory digitization project)를 수행하였다. 이에 박물관 소장품을 포함하여 문화유산 정보를 확대시키는 미의회도서관 서비스의 확대를 가능하게 하였다. 협력자들의 대부분은 도서관들이었지만 몇몇 박물관 소장품 정보도 포함되었다. 도서관에 의해 설정된 프로그램과 지침서에 따라서 프로젝트

의 협력자들은 그들 콜렉션의 자료조직을 수행하였고, 이들 자원은 현재 협력자들의 사이트뿐만 아니라 미의회도서관 웹사이트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다.

미의회도서관과 Ameritech 협력자들이 협력체제 구축을 통하여 연합했을 때, 도서관과 그 협력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유일한 콜렉션 7백만 이상의 디지털객체를 전세계 이용자가 이용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디지털콜렉션은 단독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디지털 콜렉션 자원이다. 아울러 이러한 콜렉션은 교육적 도구로서 K-12에도 이용되고 있다. 이는 도서관 중요성과 함께 어떻게 도서관의 중요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가를 교사들에게 안내하는 학습계획과 교과과정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American Memory Fellows Program은 1997년 이후 교사들에게 강력한 계속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③ ArtsConnectEd(<http://artsconnected.org>)

Walker Art Museum과 Minneapolis Institute of Arts는 온라인 자원과 ArtsConnectEd에서 고성능 웹 전시를 공유하는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 협력체제에서는 교육에 기반을 두고, 강의 계획과 교과과정 안내, 온라인 미술 작품 온라인 활동 등 교사의 학습자료 도구의 제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ArtsConnectEd는 이러한 협력체제를 통하여 도서관, 아카이브와 예술소장품을 통합하여 이용자가 웹을 통하여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예술작품의 칼라 디지털 이미지, 오디오, 비디

오 정보, 월커아트센터와 미네폴리스예술센터에 구축된 자원과 연계되는 텍스트 정보를 연동하여 풍부한 예술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 도서관/박물관 협력체제 모형 및 발전방안

4. 1 협력체제 구축 원칙

도서관과 박물관이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서는 도서관과 박물관이 기반을 두고 있는 지역공동체의 문화공간내에서 긴밀한 협력과 교류가 병행되어야 한다.

문화유산기관으로서 도서관과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유형은 상당히 다르다. 특히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 중 상당 부분 중복적인 자료를 소장하는 것과는 달리 박물관은 개별적이고 유일한 다양한 특징을 지닌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자료 조직적 측면에 있어서도 도서관의 서지데이터베이스에 필요한 서지정보의 작성보다 박물관의 소장품 자료에 대한 기록이 훨씬 복잡하다. 도서는 그 객체를 통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지만, 소장품 자료는 그 객체를 통하여 정확한 정보의 수집과 채취가 어렵다. 또한 유물에 대한 기록은 그 특징에 대해 부가적으로 사실, 해설 및 해제 정보가 필요하다.

여기에 더하여 박물관의 소장품 기록은 대상물의 훼손, 파괴 등과 대여, 전시로 인한 이동 및 기증자나 원소유자의 변경사항 등 상황

에 따라 정보가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소장품의 대상물 기록은 보관 장소의 변경, 대여, 보험의 변동, 전시, 보존 등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져야 한다(Andrew and Light 1980).

여러 가지 특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도서관과 박물관 자료조직 협력체제의 구축은 문화정보의 교류를 통한 문화발전에 초석이 되는 사업으로서 지역적, 국가적 차원뿐 아니라 세계적 수준에서 공동체 문화의 발전과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도서관과 박물관 협력체제 구축의 기본 원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도서관이 구축하고 있는 소장 자료에 대한 서지정보데이터베이스와 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박물관 소장품에 대한 유물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이용자가 풍부한 정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도서관과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는 그 조직의 임직원이나 소수 연구자들에게만 허용하는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도서관과 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은 문화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손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공동재산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도서관이 수십 년 동안 구축해 온 서지데이터베이스와 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소장품의 유물데이터베이스 공동 활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차원에서 협의되어야 한다. 기관의 특성이나 상호 차이를 넘어서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협력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개별 단독 기관의 물리적 소장 한계를 극복하고 질적인 서비스 확장을 위한 최적

의 방법론으로 이용자는 보다 풍부하고 품질이 우수한 문화유산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이러한 협력체제의 구축은 수시로 수집되는 자료의 분석과 정리, 보존에 있어서도 시간적, 경제적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표준화된 절차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는 독립된 하나의 기관이 처리해야 하는 수많은 자료의 조직과 관리를 나누어 분담함으로써, 경제적 비용절감과 시간적 효율성 등 많은 효과를 볼 수 있고, 이용자는 보다 신속하게 풍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4. 2 협력체제 구축 모형

지금까지 도서관은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요구를 가지고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유지하여 왔다. 도서관은 이러한 협력체제의 구축 경험을 통하여 유용한 서비스를 창출하는 상당한 경험과 성공을 거두어 왔다. 그러나 박물관은 협력체제의 구축에 대한 경험도 일천하고, 협력체제의 필요성에 대한 마인드도 초보적인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도서관 협력체제 구축 경험을 통하여 박물관과 도서관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도서관과 박물관의 협력체제 모형으로는 자율방임형 상호교환 모형, 분산형 상호서비스 모형, 집중형 서비스센터 모형, 혼합형 공동관리 모형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율방임형 상호교환 모형

이 모형은 상호 협력체제 구축을 원하는 도

서관이나 박물관 중 두 기관이 자율적으로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자율방임형 방식이다. 이러한 자율방임형 상호교환 모형은 정보자원을 동등하게 소장하고 있거나 특화된 자원을 소장한 기관이 다른 특정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과 협력체제를 유지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이다. 이러한 모형의 협력체제를 통해서는 자원의 전략적 활용과 정보서비스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 이 방식은 서로 다른 자원을 보유한 기관과 동등한 상황에서 자율적 의사로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근간으로 한다. 이 모형의 전형적인 서비스로는 협력체제를 구축한 기관간에 자원공유와 정보교환, 상호이용, 상호대차 서비스가 가능하다.

② 분산형 상호서비스 모형

분산형 상호서비스 모형은 두 개 이상의 도서관과 박물관이 협력체제를 통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 자원의 활용과 협력기관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모형은 다양하게 특화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산기관 간에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협력기관간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확대 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러한 모형의 협력체제를 통해서는 기반 시설과 자원의 활용 확대 및 정보서비스의 양적, 질적 측면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모형의 전형적인 서비스로는 제휴형식의 시설 공동 활용 및 자원 공유와 정보서비스가 가능하다.

③ 집중형 서비스센터 모형

집중형 서비스센터 모형은 여러 도서관과 박물관이 집중적인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별 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본부 서비스센터에 입력하고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모형은 통합적 문화유산정보의 보존과 관리, 활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전폭적으로 필요한 방식이다. 따라서 이러한 협력체제 모형의 구축은 통일되고 표준화된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집중적으로 자원을 관리하는 국가주도형 문화유산정보시스템 구축에 적절한 방식이다. 이 모형은 문화유산의 수집과 보존 및 축적을 넘어 자원의 공유와 활용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국가주도형 통합시스템으로 구축될 때 효율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방식이다.

④ 혼합형 공동관리 모형

혼합형 공동관리 모형은 협력체제를 관장하는 총괄 본부를 중심으로 두 개 이상의 도서관과 박물관이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유형의 협력체제 모형은 기능별, 분야별, 지역별 협력체제 구축에 용이한 방식이다. 따라서 기능별, 분야별 지역별 등으로 두 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원을 총괄본부를 통하여 필요에 따라 서로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의 협력체제 모형은 규모는 작지만, 기능별, 분야별, 지역별로 특화되고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식이다.

4. 3 향후 발전방안

오늘날 도서관과 박물관이 직면하고 있는 제반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 문화기관들이 수집하고 관리하고 조직하여

야 할 자료와 정보의 양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박물관의 경우 그 규모가 작고, 부족한 전문인력, 예산상의 제약으로 풍부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적합한 해결책으로 박물관간 네트워크 구성하고, 나아가 도서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서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면서 풍부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도서관과 박물관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두 기관간 긴밀한 협력과 교류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협력체제의 공고한 구축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상당히 다르게 발전되어온 조직문화나 자료조직 방법 등의 이해와 협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Schrage(1995)는 성공적인 도서관과 박물관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도서관과 박물관이 성공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상호 공유되고 이해된 목표가 필요하다. 이러한 협력체제는 도서관과 박물관 관계의 표현으로서 기술이 아니라 상호 합의된 목적의 실현으로서 수행되어야 한다.

둘째, 지금까지 도서관과 박물관은 이질적인 조직문화로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에 협력체제 구축에 앞서 상호존중과 포용력 및 진실이 가장 중요하다. 막연한 친밀(friendship)만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는 없다.

셋째, 도서관과 박물관은 협력체제내에서 공유된 공간, 전문인력, 기술 등 실시간 접근이 허용되는 공유 공간을 기반으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표준화된 정보의 생성과

처리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넷째, 성공적인 협력체제의 구축은 도서관과 박물관 측면에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최종이용자의 효율적인 이용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서관과 박물관의 성공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이질적인 두 문화유산기관간에 상호 협의되고 공유된 목표가 분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공유된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공익적 차원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아울러 도서관과 박물관적 기관간 관계의 측면에서 협력체제가 구축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기반으로 구축되어야 함을 간파해서는 안 된다.

5.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도서관계는 소장 장서에 대한 자료의 수집과 정리에서 최종 이용자서비스에 이르는 광범한 공유를 통하여 상호 협력체제를 유지해 온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박물관계는 상시전시, 연구 및 소장품 목록 데이터 정보 제공을 넘어서는 자원의 협력체제 구축에 대한 경험이 일천하다.

이는 박물관에 있어서 유일한 소장품에 적합한 공공적 신뢰책임이 소장품 공유를 넘어서는 우선권을 갖기 때문이다. 반면, 도서관은 유일본이 아닌 상당수 복본으로 구성된 소장 장서의 효율적인 관리나 이용의 효율성 추구가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어 도서관간 상호 협력체제를 유지하며 자원을 공유하여 왔다.

그러나 도서관과 박물관은 문화유산기관으

로서 인류 문화유산으로 가치가 있는 중요 자원을 포함하여 보호와 보존이 필요한 자원을 수집하여 소장하거나 그들 소장품을 주의깊게 전시하고, 제한된 자원을 관리하여 널리 이용하도록 하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유사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

현재 도서관의 목록데이터는 인터넷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가 자유롭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이를 목록데이터는 단독 도서관의 소장목록 뿐만 아니라 전국의 도서관 목록을 한번에 검색하여 볼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을 구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박물관 소장품 목록 정보는 일반 대중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박물관이 문화유산 자원의 저작과 식별 및 활용을 목적으로 소장품을 디지털화하고, 점차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면 문화유산정보의 활용을 양적, 질적 측면에서 모두 향상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문화유산정보의 제공에 있어 공공에 대한 가장 큰 이득은 물리적 소장품의 경계를 넘어서 자원에 접근을 원활하게 증가시키는데 있다. 특히, 박물관의 경우에 있어서 각 기관이 특화된 개별적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지역사회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협력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는 물론 전세계 이용자들에게 풍부한 문화유산정보를 서비스하게 된다면 문화유산을 통한 국가의 이미지 제고와 문화국민으로서의 자긍심도 고취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도서관과 박물관의 상호 협력체제 구축은 가상 전시회 등의 개최를 통하여 전시와 풍부한 관련 자료와 통합된 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지금까지와는 색다른 서비스를 개발하여 이용자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에 도서관과 박물관의 협력체제 모형 개발을 위한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여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도과 박물관은 문화유산정보의 수집과 정리, 보존과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상호 협력체제의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협력체제의 구축은 보다 경험이 풍부한 도서관계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도서관과 박물관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모형으로는 자율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기반으로 하는 자율방임형 상호교환 모형과 제휴방식의 분산형 상호서비스 모형, 집중적으로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집중형 서비스센터 모형, 기능별, 분야별 지역별로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혼합형 공동관리 모형을 제시하였다.

셋째, 지금까지 소수의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었던 귀중한 문화유산정보는 도서관과 박물관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하여 그 서비스 영역이 확대될 수 있다. 이에 협력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문화유산 정보객체와 관련된 메타데이터를 포함하여 문화유산 이미지, 동영상, 관련 텍스트 정보까지 풍부하고 다양한 정보로의 접근을 확대시켜 줄 것이다.

넷째, 개별 도서관이나 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은 협력체제를 통하여 공유함으로써 개별 기관이 지니고 있는 문리적 한계점을 극

복하고, 제한된 자원을 좀 더 풍부하게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문화유산정보의 공유를 통하여 개별 기관에 특화되거나 분담된 정보로의 세분화는 도서관과 박물관 직원의 전문화를 유도할 수 있다.

다섯째, 도서관과 박물관의 협력체제 구축은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문화유산정보를 보다 상세하고 풍부하게 제공함으로써 도서관과 박물관의 관련 정보와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이미지 제고를 향상시켜 줄 것이다.

여섯째, 도서관과 박물관의 협력체제로 인한 정보 공유는 지금까지 불필요한 중복된 업무를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도서관과 박물관들은 중복업무의 감소나 직원의 전문화, 세부 업무 집중화를 통하여 업무 향상을 꾀할 수 있게 된다.

아직까지 도서관과 박물관의 협력체제 구축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제기된 적이 없다. 그러나 도서관과 박물관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이용자의 정보서비스 요구를 넘어서는 무한대의 고품질 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문화유산기관간 협력체제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류의 문화유산을 발굴하여 기록, 보존하고 활용을 극대화하는 문화유산기관으로서 도서관과 박물관의 상호 협력체제의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공익을 목적으로 도서관과 박물관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협동과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상호협력 노력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은수. 2003. 『박물관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인터넷상의 소장품 정보 네트워크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 국립중앙박물관. 1996. 『박물관 유물관리 전산화를 위한 유물분류 표준화』.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 김기수. 2002. 박물관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 유럽연합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소고. 『박물관학보』, 5: 73-97.
- 김혜경. 2003. 『전문 박물관 소장품 분류의 제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 문화관광부. 2003. 『문화정책백서』. 과천: 한국, 문화관광부
- 양현미. 2002. 『박물관 연구와 박물관 정책: 문화 연구의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박물관 연구와 정책』.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 윤귀성. 1999. 『박물관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데이터요소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문현정보학과.
- 이용남 외. 2002. 공공도서관 협력망에 대한 평가. 『한국비블리아』, 13(2): 127-154.
- 이현실. 1999. 『대학도서관 협력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정보과학대학원.
- 정은숙. 1995. 『박물관 자료 전산화를 위한 분류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조윤정. 2002. 『박물관을 위한 소장품 관리 시스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 조화경. 1981. 『동일 행정체계내에서의 도서관 간 협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한국도서관협회. 2002. 『도서관협력망 협력사업 표준모델 개발』. 서울: 도서관협회.
- 횡동열. 1992. 『미술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데이터요소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문현정보학과.
- Allen, Nancy S. 1988. "The Museum prototype project: a view from the library". *Library Trends*, 37(3): 189-197
- Allen, Nancy and Bishoff, Liz. 2002. "Collaborative digitization: libraries and museums working together." *Advanced in Librarianship* 26: 43-81.
- Dempsey, Lorcan. 2000. *Scientific, industrial, and cultural heritage: a shared approach*. Ariadne 22, [online] [cited 2004. 4. 26] <<http://www.ariadne.ac.uk/issue22/dempsey>>
- Lynden, Frederick C. *Advances in Librarianship*. Amsterdam: Academic Press. 2002.
- Rinehart, Richard. 2003 "MOAC : a report on integrating museum and archive access in the online ar-

- chive of California". *D-Lib Magazine* 9(1). [online] .[cited 2004. 4. 26]
<<http://www.dlib.org/dlib/january03/rinehart/01rinehart.html>>
- Robert, D. 1980. Andrew and Light, Richard B. "Progress in documentation : Meseum documentation". *Journal of Documentation* 36(4): 49–58
- Schrage, Michael. 1995. The rules of collaboration. *Forbes ASAP Supplement*, June 5: 88–98.
- Sewell, Philip H. 1981. *Resource sharing*. London : Adre Deutsch Ltd.
- AMICO. [online] <<http://www.amico.org>>
- American Memory Project. [online]
<<http://memory.loc.gov>>
- ArtsConnectEd. [online]
<<http://artsconnected.org>>
- California State Library [online]
<<http://www.library.ca.gov>>



KCI